실전에서의 싸움의 기술, 기도

(엡6:18~24)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실전에서의 싸움의 기술,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실전에서 싸울 때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싸움의 기술이 된다는 얘깁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기는 위나라의 장군이 되자 군인들과 의식주를 함께하고 말이나 수레를 전혀 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먹을 양식은 자신이 손수 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젊은 군사 한 사람이 아주 심한 종기를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장군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종기를 입으로 직접 빨아주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든 군사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그 군인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장군이 당신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었는데 어찌 하여 통곡을 하십니까?' 마을사람들로서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아들은 이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니, 어째서 당신 아들이 죽는다는 말이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이전에도 오기 장군이 바로 그 아이 아버지의 종기를 빨아준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그 애 아버지는 너무도 감격해서 그때부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적군과

싸우다 죽고 말았다. 이제 장군이 내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었으니 내 아들도 감격하여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가 죽을 것이 뻔하니 어찌 내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모두 그 어머니가 통곡한 이유를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얘깁니다.
과연 오기가 종기를 빨아준 젊은 군사는 전쟁에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다고 해요.
참으로 이 오기 장군이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저 저 살 궁리 좀 하고 슬슬 싸우다가 살아남아서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지요.

여러분, 인류역사가 기억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치르며 성취한 알렉산더, 속전속결로 역사상 가장 광대한 땅을 차지했던 칭기즈칸, 불가능이란 것이 없다면서 끝없는 도전의 길을 걸었던 나폴레옹1세,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제휴를 이끌어내면서 자기의 뜻을 펼쳐나갔던 시저, 이런 사람들, 말도 못하게 많지요.
근데 일반 역사가 주목하지 않은 독특하고 유일한 전쟁을 치른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에요, 여호수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치른 승리자입니다.
군인들에게 전쟁에 대한 의욕과 사기를 높여준 심리전을 쓴 것도 아니고, 탁월한 병법과 용병술을 활용한 것도 아니고, 시저처럼 정치적인 능력으로 제휴를 이루어내면서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웠느냐?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선민을 끌고 들어가야 될 책임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무얼 하느냐 봤더니,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가 싸우라'가 아니에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다 지켜라, 이걸 부연설명 하시는데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네가 한 가지 이루어야 될 일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떼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의문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어디서? 전쟁터에서.
지금 칼과 창을 든, 심지어 철기로 만들어진 무기를 들고 기마병 부대를 당시 이미 갖고 있었던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려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의 싸인이 율법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책을 묵상해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책을 읽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쳐들어오면 당장 우리 힘으로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잔뜩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율법 책을 읽으려니까 이게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책은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 속에 무슨 용병술이 있습니까, 병법이 있습니까,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법이 거기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멍청할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왜 멍청해 보입니까?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수행해나가십니다.

가나안 7족과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실제 내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마음을 전쟁에 빼앗기지 않고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전쟁의 상황이 급물살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흐름을 수직으로 뚫고 나와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니까 율법 책밖에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상징적인 물건이 없으니까 그 율법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한 마음은 전쟁터로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 두렵다!'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려운 게 좌로 치우친 것이고, 승리해서 자만하게 되면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도 빠지지 말고 자신감에도 빠지지 말고 의욕에도 빠지지 말고 제로 점에서 위를 향해 뚫고 올라가려니까 율법 책을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싸움의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란스럽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요란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술이 곧, 싸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함께하시는 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여호수아에서처럼 싸움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쟁취하고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파괴시킬 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급소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무슨 일을 벌여서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안 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기술은 마귀와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것에 안 빼앗기느냐 하는 기술을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술을 터득하면 이게 실전에서 싸우는 기술입니다.

실전이라는 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실전이란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사회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전의 현장,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이곳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가르쳐주신 싸움의 기술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이 기도가 여호수아의 싸움과 비교하면 율법 책에 해당됩니다, 율법 책을 묵상하는 데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기억해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십자가사역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기도가 갖는 의미가 뭐냐?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있어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식이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긴가 하면, 사업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자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돼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휩쓸려 갑니다.
이때 우리의 싸움은 부도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부도를 막는 것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부도를 막느냐 마느냐,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신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 것이에요, 혈과 육이 원래 하나님 거니까.
우리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 계신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업이 부도가 난다는 이 문제에서 강하게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이 걱정에서 어떻게 사장님이 헤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수평으로 급물살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을 휩쓸어 끌고 가버립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이 흐름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하면, 사업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부도 막을 수 있는 자금을 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 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보통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업의 위기보다 더 먼저 있는 현실로 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쥐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대치국면에서 주야로 율법 책을 보고 있어요.
이거 뭐 정신없는 짓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마찬가지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자식이 위기에 처해있고, 내 건강이 위기에 처해있고,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혈과 육의 상황에 대해 마음이 죽어버려라, 마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 자식의 위기보다, 내 사업의 위기보다, 건강의 위기보다,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먼저 계신 현실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요, 기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우선 이 현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현실에서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이고 그 죽음은 내가 마음을 하나님 이외에 빼앗기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죽음이니까, 나는 죽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너머로 들어가 버릴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속

이에요, 십자가에 걸려있는 약속.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에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확신 있게 내 것으로 갖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고 천국을 갖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거 있잖아요?
정직과 의와 평안과 그리고 말씀으로 된 무기,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안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면서 내 마음 안에 천국을 가득 담게 되면서 평강을 갖게 됩니다.
이 평강을 갖게 되면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현실을 뚫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앞서 있는 현실로 인정하고 마음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는 기술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기도는 율법 책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싸움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법이 뭐냐 하면 '바쁘게 하기'에요, 바쁘게 하기.
출애굽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바쁘게 해라, 짚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짚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게 해라,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이전처럼 만들도록 하라'
그래서 나타난 효과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예배하라'라고 했던 그 모세가 전한 말이 다 거짓말인 것으로 느껴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업하느라 굉장히 바빠졌어요, 사업이 바쁘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 먼 산의 아지랑이처럼 보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바쁠수록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고 세상일에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물가물 저~쪽 구석에 있는 종교적 섹트에 갇혀져 있는 한가한 사람들의 이야기

로 들리게 됩니다.
‘아니, 무슨 예배는 예배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십자가복음이 지금 문제야?’ ‘그래, 십자가복음 좋은데, 우선 사업부터 해결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십자가복음이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식 키우는데 십자가복음이 아무 관계없잖아요, 아 밥장사 하는데 십자가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관계없어 보이는 십자가복음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어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대해서 죽게 해주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바쁠수록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이라는 사실을 늘 깨어서 기억하라.
그런데 이미 사로잡혔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아도 잘 안 죽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다 끊어냅니다, 말씀의 칼이 다 끊어내요.
그럴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싸움의 기술은 주야로 율법 책을 묵상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싸움의 기술은 주야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싸움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 번 이기는 싸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가시고, 내 마음은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마귀가 납작코가 돼버리는 그런 싸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이 세상 삶의 현실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의 기술은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싸움의 기

술인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